

연구윤리와 출판윤리가이드라인

연구대상

환자를 모아서 질병의 특징을 파악하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논문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답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자료를 논문에 포함한 경우 출판윤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보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공저자로 참여하거나 최소한 자료를 제공해 준 기여자에 대한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이 논문에 표기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의 저자됨

A 교수는 특정 질환의 진료행태를 알기 위한 설문을 작성하여 90명의 의사에게 질의를 하였다.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설문에 응한 의사를 공저자로 해야 할지 논란이 있다.

답변:

90명을 공저자로 하는 것은 안된다. 저자됨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만을 저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순히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을 감사의 글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90명의 설문응답자 의견 뿐 아니라 병원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면 90명을 기여자로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포함할 수 있다.

출판윤리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 출판

의편집에서 발간한 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전체 내용을 특정 학술지에 게재 하여도 되는가?

답변:

출판윤리가이드라인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표지 하단에 “본 가이드라인 전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발행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허락 하에 게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인쇄 교정쇄가 나온 후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학술지 투고 규정의 연구, 출판윤리항목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필요한 연구 및 출판윤리 관련 항목은 무엇인가?

답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wwWork in Medical Journals (Updated December 2013)에서 다음 항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Roles & Responsibilities
 - Defining the Role of Authors and Contributors
 - Author Responsibilities—Conflicts of Interest
 - Responsibilities in the Submission and Peer-Review Process
 - Journal Owners and Editorial Freedom
 -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 Publishing & Editorial Issues
 - Corrections and Version Control
 - Scientific Misconduct, Expressions of Concern, and Retraction
- Copyright
 - Overlapping Publications
- Correspondence
 - Supplements, Theme Issues, and Special Series
- Sponsorship or Partnership
- Electronic Publishing
- Advertising
- Journals and the Media
- Clinical Trial Registration

학술지에 사용된 표나 그림을 사용할 경우

학술지에 사용된 표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나?

답변:

Open Access 학술지에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하고 있을 경우에는 표, 그림을 인용하는 학술지가 비영리 목적으로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 없다. 상업출판사에서 발행된 학술지나 단행본에 수록된 표나 그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Copyright Clearance Center에서 승인을 받는다. 우리나라 학술지 논문의 표, 그림이라 하더라도 상업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것과 같이 영리목적 학술지에서 사용하려면 학술지 발행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 공지문

한글판 “잠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위한 ICMJE 서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선언의 유효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ICMJE에서 요구하는 이해관계 공표와 관련한 유효일의 기준은 논문의 개념화한 시점에서 36개월 이전을 의미한다. 유효일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ICMJE는 3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NIH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아이디어 표절

영문 종설을 작성하면서 이미 출간되어 있는 기존 종설의 차례나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하였지만 동일한 단어, 표현을 자제하여 CrossCheck 유사도가 4% 밖에 되지 않은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가?

답변:

표절의 유형에는 그대로 복사하는 verbatim, 같은 틀과 문장을 다른 문구로 표현하는 paraphrasing, 요약하는 summarizing 이 있다. CrossCheck 유사도가 4% 정도로 낮은 편이고 논문의 내용전개, 글의 전개순서와 내용이 표절의 의심을 사지않도록 표현하였지만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논문 일부에서 원저자의 주관적인 표현을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논문의 다른 부분에는 원본에 없는 다른 내용을 첨가하여 전혀 다른 논문처럼 인식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락이나 인용 없이 기존 종설을 발행한 원저자의 논문을 모방한 것으로 paraphrasing 유형의 중대한 표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 대상의 논문 작성

연구 대상은 동일하지만 주된 연구 방법을 다르게 접근하여 출간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같은 대상이지만 새로운 목적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독립적인 논문으로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자가 같은 경우 뒤에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먼저 발간된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지 않고, 대상과 방법에서 기존 논문의 대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표절의 범주에서 문장재사용(자기표절, text recycling)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판윤리위반에 해당한다.

표절

종설 논문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종설을 참고하며 작성하였다. 일부 문장은 적절한 표현이 없어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가?

답변:

종설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참고한 타인의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하여도 논문의 기술이 저자의 독창적인 기술이 아니고 타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여러 문단(paragraph)이 존재하는 경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며 문장재사용(text recycling)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문장을 기존 논문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독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표절로 간주된다.